

과학자들에 대한 다심한 사랑

어느해 가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시였다.

그이를 휴양소에 모시게 된 일군들의 결정은 남달랐다.

울창한 수림속에 자기의 멋진 자태를 자랑하며 우뚝 솟아난 휴양각들과 봉사건물들, 시원하게 쭉 뻗어나간 특색있는 외랑…

우리 과학자들이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하며 휴식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노래반주기재와 오락시설, 체육기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실내물놀이장과 리발실, 미용실, 식사실과 연회장 등이 훌륭히 꾸려져있는 종합봉사소는 만사람의 감탄을 자아내였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종합봉사소의 봉사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광에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리여 있었다.

전실과 침실, 세면장 등으로 이루어진 호실들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로대로 나오시여 종합봉사소건물과 휴양각들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축형식이 정말 멋있다고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입니다.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정말 큰마음을 먹고 건설한 휴양소입니다. …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금방석!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최상의 휴양소를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를 우러러 일군들모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자애로운 스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처럼 행복하고 궁지높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뜨거운 결정을 터치였다.